

<첫째주> 소그룹 모임 본문 : 다니엘 2:12-23

“지혜로 가는 길”

찬송: 새찬송가 552 장(통일 358 장) – 아침 해가 돋을 때

새찬송가 86 장(통일 86 장) –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새찬송가 366 장(통일 485 장) –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 여는 질문

* 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답형 대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어야 할 말씀의 ‘핵심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받기 보다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나누자고 권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2. 본문 이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다니엘서 본문의 전체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를 짚어본 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를 풀어갑니다. 이 전체적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약성경의 요한 계시록과 더불어 ‘묵시문학’이라고 불리는 문서군(群)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유대 민족의 운명이 가장 위태로웠던 주전 2 세기의 신앙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극심한 박해의 상황’이라는 배경에서 주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까닭에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고, 주요 메시지를 ‘은유와 환상과 상징’으로 전달합니다.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배경과 특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번째 부분(1-6 장)은 유대인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왕의 지혜자로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부분(7-12 장)은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네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한 나라와 민족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며, 최후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 그의 백성에게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천문학과 수리학, 점성술과 주술이 발달했습니다. 당연히 제국 안에는 뛰어난 점성가와 주술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여겨졌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느날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으로 인해 그들 지혜의 밑천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들 중 누구도 왕의 꿈을 알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왕은 궁중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려고 했고,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은 ‘지혜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모든 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아무도 풀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의미를 낱알이 풀어줍니다. 본문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로 알려진 자들의 거짓 지혜’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자의 참 지혜’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가장 지혜로운 자로 소개하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며, 지혜로운 삶은 ‘지혜의 근원이신 그 분을 의지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3. 말씀 속으로

1) 왕에게 처형당할 위기가 찾아 왔을 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16-18)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지혜’(내 지식, 내 경험, 내 친구, 내가 아는 힘있는 사람, 전문가)를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2)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2:31-45)

꿈의 내용 - 왕은 빛이 찬란하고 무시무시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순금, 은, 놋쇠, 쇠,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이 돌 하나가 날아들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꿈의 의미 - 순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며, 여러가지 재료들(은, 놋쇠, 쇠, 진흙)로 구성된 나머지 부분은 뒤에 나타날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에 의해 멸망 당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4. 삶 속으로

1)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어디서 지혜를 찾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는 행동이 ‘우리가 지혜를 찾는 방식’임을 염두에 둡니다.

2)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질문은 돌아가면서 하기보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누게 합니다. 간증 같은 형식의 나눔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눔이 길어지면 한 사람으로도 족합니다.

5. 암송 구절 : <다니엘 2: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6. 자녀와의 나눔

*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자’의 뚜렷한 대조가 중요합니다.

<둘째주> 소그룹 모임 본문 : 다니엘 4:1-18

“그루터기”

찬송: 새찬송가 545 장(통일 344 장)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새찬송가 430 장(통일 456 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찬송가 384 장(통일 434 장) –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 여는 질문

* 신앙의 위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대화를 나누기 보다는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암시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가 '신앙의 위기가 심각한 시대'임을 상기 시켜주는 어떤 예를 들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2. 본문 이해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의 내용 중에 '그루터기'의 메타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인도자는 '그루터기 이미지'가 주는 의미를 미리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4 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제국의 왕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특별한 편지입니다. 이 보고문 형식의 편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후반부에 전개되는 묵시적 환상의 요소를 맛보기처럼 미리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제를 미리 암시해주는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 4 장은 다소 길게 느껴지지만, 내용을 요약하자면 '왕의 꿈(10-17), 다니엘의 해몽(19-27), 꿈의 실현(28-33)'이라는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소개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다니엘서 전체가 품고 있는 핵심 메시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큰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온 세상에 나눠주다가, 가지가 잘리고 몸통이 잘려 그루터기만 남게 되지만, 7년만에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꿈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나눠주다가 가지가 잘리고 몸통이 잘려나간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년'(하나님의 때)만에 그루터기로부터 싹이 자라고 다시 새로운 나무가 자라날 것입니다. 여기서 '그루터기'의 메타포가 중요합니다. 가지와 몸통이 잘려나가고 뿌리만 살아있는 나무 밑둥인 '그루터기'는 위기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참된 신앙인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기독교 영역을 더 크게 확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그루터기'가 될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 장차 가지가 더 많이 잘려나가고 몸통까지 잘려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소수의 그루터기들’(Remnants)로부터 새 싹이 돋고 새 가지가 자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루터기로 남을 준비를 해야할 때입니다.

3. 말씀 속으로

1)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의 내용을 묘사해 봅시다. (4:10-17)

높고 큰 나무가 점점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여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감시자가 나타나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구고 열매를 헤치라고 명합니다.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명합니다.

2)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4:17, 25, 26, 32)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신 다는 것

4. 삶 속으로

1) 기독교 신앙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징후 들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교회의 위기, 신앙인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아래 2 번과 3 번 질문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지금 이대로, 지금 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처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3) 우리가 직면한 기독교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5. 암송 구절 : <다니엘 4:26>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6. 자녀와의 나눔

* ‘그루터기’ 그림(사진)을 보면서 특징을 말해봅시다.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도자는 그루터기 그림(사진)을 미리 준비합니다. 대화를 나누되 모든 가지가 잘려나간 후에도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려 나무 본래의 생명력을 간직하는 그루터기의 특징을 꼭 환기 시켜줍니다.

<세째주> 소그룹 모임 본문 : 다니엘 12:1-13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찬송: 새찬송가 360 장(통일 402 장) – 행군 나팔 소리에

새찬송가 425 장(통일 217 장)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찬송가 191 장(통일 427 장) – 내가 매일 기쁘게

1. 여는 질문

* 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시대를 어떻게 참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삶과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진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이 어떻게 다니엘서가 전하는 묵시문학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2. 본문 이해

다니엘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정의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상반된 영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천하라고 촉구합니다.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 불리우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목격한 몇가지 환상들과 함께 특별히 후반부(7-12 장)에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잘 나타나있습니다. 묵시문학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절망과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장차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둘째,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참되고 온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은 알듯모를듯한 결말을 남겨두고 끝을 맺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때가 지나야 한다는 말씀, 천이백 구십일동안 성전이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 천삼백 삼십오일이 지나기까지 참아야 한다는 말씀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 즉 완전 수(7)의 절반을 뜻하는 상징어로 '매우 불안하고 불완전한 시간'을 뜻하고, '1290 일'이나 '1335 일'이라는 숫자 역시 정확한 날짜를 지칭하는 숫자라기보다 '불안하고 불길한 시대'를 묘사하는 일종의 '숫자 코드'일 것으로 봅니다.

소재로 등장하는 숫자나 단어의 뜻은 불분명하지만,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때가 되면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300여년전,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던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을 떠올리면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이 무너진채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신앙, 신학, 교회, 전통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니엘의 메시지에 귀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되,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더 참되고 더 의로운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말씀 속으로

1) 본문에 등장하는 '코드, 숫자, 묵시적 표현들'을 전부 찾아 적어 봅시다. (12장 전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90 일, 1335 일

2) 다니엘(모든 성경 독자)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은 무엇인지 찾아 봅시다. (12:13)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 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문장은 꼭 새번역으로 읽기)

4. 삶 속으로

1) 지금 우리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우울증, 불안, 노이로제, 정신적 불안정)으로 매우 빈곤한 시대, 끝없이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달려가 크게 성공하려는 탐욕의 시대, 교회가 기업화 되고 성직이 세습되며 신앙이 형식화 되는 종교적 타락의 시대, 지금이야말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아닐까요?

2)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가장 불안한 위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3)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강조는 인간의 노력을 간과할 수 있고, 인간의 노력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 둘 사이가 조화로운 신앙임을 깨닫도록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의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좋은 농부는 적절한 ‘햇빛과 비’(은혜)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잘 알지만, ‘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는 수고’(노력)를 결코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만, 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는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입니다. 구원(의)이라는 목적지에 가 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라는 두 날개가 다 필요합니다.

5. 암송 구절 : <다니엘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6. 자녀와의 나눔

*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째주> 소그룹 모임 본문 : 호세아 4:11-19

“벰아웬으로 가지 말라”

찬송: 새찬송가 304 장(통일 404 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찬송가 525 장(통일 315 장) – 돌아와 돌아와

새찬송가 314 장(통일 511 장)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 여는 질문

*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2. 본문 이해

언제나 그렇지만 예언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살았던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의 독특한 언행을 이해하려면 그 어떤 예언자보다 그가 처했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세아는 주전 8 세기에 생존했던 네 명의 ‘문서 예언자’(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했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 남유다 왕국과 달리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갖지 못한 콤플렉스가 생겨납니다. 명절이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은 서둘러 ‘길갈과 베텔’에 자체 성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법궤가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하드 웨어(제사의 장소)는 마련했으나 소프트 웨어(제사와 신앙의 체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서둘러 가나안 토속 종교였던 바알과 다산 종교의 시스템을 빌려오게 되고, 그로인해 베텔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뿌리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제사’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정치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앗시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이같은 모든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았던 행동, 간음한 아내를 고발하면서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행동은 이같은 북이스라엘의 문란함을 비꼬기 위한 호세아의 신랄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5 절에서 호세아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벵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벵아웬’(악인의 집)은 ‘베텔’을 비꼰 말로 하나님의 성소가 악인의 집이 되었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호세아에게 ‘베텔’은 완전히 타락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 괜찮습니까? 더 많은 교인들을 수용하려고 상상할 수 없이 큰 예배당을 짓는 교회들, 벵아웬 아닐까요? 담임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도 주의 뜻이라고 말하는 목사들, 벵아웬의 제사장들 아닐까요? 성 문제, 돈 문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해도 회개하지 않는 목사들,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는다’고 말하는 목사의 말을 ‘아멘 아멘’ 하며 추종하는 군상들, 벵아웬의 이교도들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기보다 ‘편안한 종교 소비자’를 세련되게 관리하는 교회들, 벵아웬 아닙니까? 벵아웬으로 가지 맙시다. 절대 그리로 올라가지 맙시다.

3. 말씀 속으로

1) ‘베델’은 무슨 뜻이며 ‘벵아웬’은 무슨 뜻입니까? (4:15)

베델 – 하나님의 집, 벵아웬 – 악한 자의 집

2)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따끔하고 아프게 찌르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4 장 전체)

다같이 4 장 전체를 읽은 후에 질문을 따라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4. 삶 속으로

1) 호세아 4 장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가장 귀기울여야 할 고발은 무엇일까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이끕니다.

2) 우리 신앙인들이 ‘벵아웬’이 아닌 ‘베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5. 암송 구절 : <호세아 4:1>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6. 자녀와의 나눔

*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 해주면서 그들의 생각에 귀기울여 봅시다.

<다섯째주> 소그룹 모임 본문 : 호세아 12:7-14

“다시 광야에서”

찬송: 새찬송가 331 장(통일 375 장) –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새찬송가 523 장(통일 262 장) – 어둔 죄악 길에서

새찬송가 292 장(통일 415 장) – 주 없이 살 수 없네

1. 여는 질문

*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고 신실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은 여는 질문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조금 여유있게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2. 본문 이해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떻게 바알 종교와 섞이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알 신앙과 섞이면서도 자신들의 타락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의 영적 무감각을 꼬집는 메시지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타락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 자신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 버린 후에 ‘베델과 길갈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급기야는 ‘높은 언덕’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높은 언덕’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기에, 이미 ‘바알의 신당’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수확기에는 ‘타작 마당’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지극한 풍요의 비전을 제시하는 ‘바알의 신당’과 수확의 기쁨에 취해 흥청거리는 ‘타작 마당’은 서로 너무 잘 어울렸고, 그 높은 언덕에서 백성들은 입술로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되, 마음의

중심은 풍요의 신 바알을 따라 걸죽한 탐욕과 음란의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종교는 탐욕의 크기만큼 번창했고 그들의 신앙적 열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부흥이며 축복인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호세아의 충격적인 행동과 메시지는 이같은 영적 무지와 몽매를 일깨우기 위한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언자는 무지몽매한 신앙인들을 향해 ‘새로운 영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다시 광야에 서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장 순전한 관계를 맺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집트 종살이 시절? 그때 그들은 ‘나름의 익숙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시절? 그들은 ‘새로운 풍요’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번영하던 시절? 그들은 곧 가나안 토착 종교와 섞여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신실한 관계를 맺었던 시기는 놀랍게도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 외엔 아무 것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집트라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딛는 곳마다 ‘예측 불가능한 현재’를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12:9)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광야서’ 살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순전함, 그때 그 간절함, 그때 그 깨어있던 신앙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외엔 아무 것도 없는듯, 그렇게 살아갑시다.

3. 말씀 속으로

1) 12 장은 온통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규탄과 징벌의 예고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간절한 본심이 드러나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12:6)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라라.”

2)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12:9)

장막(텐트)은 광야 시절에 사용하던 주거 수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그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4. 삶 속으로

1)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난하던 때, 광야를 지나던 때, 하나님 외엔 아무 것도 없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는 질문’과 연결된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뒷 부분의 질문(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때처럼 살기 원하십니까?)에 포커스를 맞추어 나눔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5. 암송 구절 : <호세아 12:6>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6. 자녀와의 나눔

* 혹시 엄마 아빠와 캠핑을 해본 적이 있나요? 캠핑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겠지만 좋았던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캠핑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고, 무엇이 가장 좋았습니까?

캠핑을 하는 동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함, 가난함, 자유로움’이 주는 즐거움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